

통풍치료제 ‘알로퓨리놀’ 처방 전,
유전자 검사 전면 급여화

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다빈도 원인 성분인
알로퓨리놀, 2021년 8월 1일부터 HLA-B*5801 검사
급여 기준 개정으로 **알로퓨리놀 약제 투여가 필요한
모든 환자에게 HLA-B*5801 유전자 검사가 전면
급여 인정**됩니다.

투여 전,

**HLA-B*5801 유전자 검사로
부작용을 예방하세요.**



**HLA-B*5801
유전자형 검사**

Human Leukocyte Antigen Genotype

 **GC** 녹십자의료재단  **GC** 셀

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이현로 30번길 107
대표번호 1566-0131 Fax 031-8061-6302
www.gclabs.co.kr



GCCL-001-0009-Ver.10(2021.10.07)



Human Leukocyte Antigen Genotype

HLA-B*5801 유전자형 검사

‘통풍치료제 알로퓨리놀’의
약물 유해반응을 피하는 길

 **GC** 녹십자의료재단  **GC** 셀

통풍이란?



통풍은 **혈액 내에 요산의 농도가 높아지면서** 이로 인해 발생하는 요산염 결정이 관절의 연골, 힘줄 등 조직에 침착되어 **관절의 염증을 유발하고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질병**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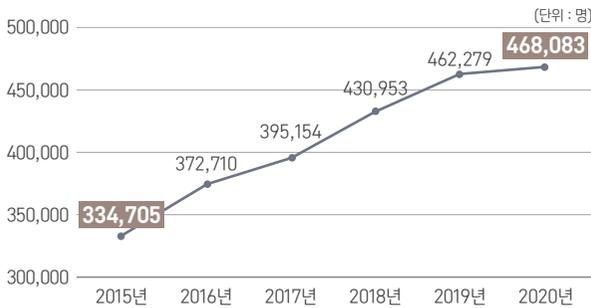
주요 증상

관절에서 극심한 통증과 발적, 열감, 부종을 동반한 급성 통풍 관절염 등

요산 배설 저하 원인

신장 질환이나 아스피린, 이노제 복용, 음주 등

통풍 환자 수 통계



자료 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 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

국내 통풍 환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.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통풍 환자는 2015년 334,705명에서 2020년 468,083명으로 약 40% 증가했습니다.

알로퓨리놀이란?

알로퓨리놀은 신기능 저하, 통풍 환자에게 혈중 요산 수치를 낮추기 위해 처방되는 약물입니다. 매우 드물지만 알로퓨리놀 복용 환자에서 예상치 못한 중증피부약물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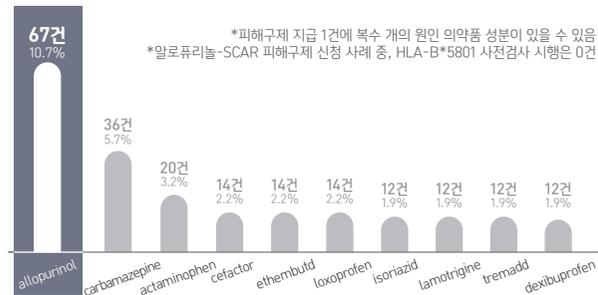


알로퓨리놀에 의한 중증피부약물이상반응

통풍 치료를 위해 정해진 용량의 약물 투여를 한 후 나타나는 유해한 반응을 **약물이상반응**이라고 부르며, 이 중 **광범위한 전신발진, 물집, 점막 손상이 나타나거나 화상처럼 피부가 벗겨지는 심한 경우를 중증피부약물이상반응**이라고 부릅니다.

알로퓨리놀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원인 의약품(성분)

1위입니다(2020년 기준). **HLA-B*5801 유전형**을 가진 경우 **알로퓨리놀에 의한 중증피부약물이상반응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** 있습니다.



자료 :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원인 의약품 통계(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, 2020)

알로퓨리놀 처방 전, HLA-B*5801 사전검사의 필요성

약물 복용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면 가능한 빨리 약물 복용을 중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또한 약물 복용 전에 HLA-B*5801 유전형 검사를 시행해서 위험 유전형을 가진 경우 다른 대체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좋은 예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



그림 : 약물 투여 전 HLA 유전형 사전 검사를 통한 SCAR 예방 전략

HLA-B*5801 유전자형 검사란?

- HLA란 human leukocyte antigen으로서 인간 백혈구 항원이라고 부릅니다. 우리 몸 밖에서 들어오는 물질을 담아 T세포에 전달하여 면역 반응을 유발하며 HLA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형은 사람마다 모두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
- HLA-B*5801 유전형을 가진 경우 알로퓨리놀에 의한 중증피부약물이상반응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
- 한국인의 HLA-B*5801 유전형 빈도(12.2%)는 서양인(1~2%)보다 높습니다.
- 혈액을 채취하여 검사를 시행하며 보통 2주 이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